

동성애에 대한 책갈피

송인규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동성애를 다루는 각종 문서와 책자는 거의 무한정이다. 분야만 하더라도 근동 지방이나 로마 시대의 문헌 조사에서 시작하여 일란성 쌍생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학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또 내용을 개진하는 이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천차만별의 분석 및 평가 자료가 존재한다. 여기 책갈피에서는 복음주의적 신앙을 견지하는 이들의 저술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두 권의 표준서

동성애 이슈와 관련하여 성경적 표준에 기반을 두

면서도 가장 센스 있고 탄력성 있는 글을 찾으려면, 리뷰어로서는 주저하지 않고 존 스토틀(John R. W. Stott, 1921~2011)의 Same-Sex Partnerships?: A Christian Perspective [1998년 Fleming H. Revell 간행]를 추천할 것이다. 이 책자는 스토틀가 별도의 저술로 기획한 것이 아니고, 그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된 [1984년 초판; 1990년, 1998년, 2005년 개정]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의 책임」(정옥배 옮김; 한국 IVP, 2012년 역간)의 16장 “동성애”를 문고판 형태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스토틀는 1장에서 동성애가 이슈화된 맥락을 소개하

고,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동성애 행위를 금하는 네 곳의 성경 본문 - 소돔 이야기(창 19:1-13) [사사기 19장 포함], 레위기 법전 (레 18:22 및 20:13), 부패한 로마 사회에 대한 묘사(롬 1:18-32), 바울 서신에 나타난 죄인 목록 두 군데(고전 6:9-10; 딤후전 1:8-11) - 을 다룬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꼭 동성애의 죄성을 입증하지 않는다는 수정주의자들의 해석에 직면하여, 그런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한다. 그리고 그러한 방어적 시도는 오직 성과 결혼에 관한 세 가지 창조 원리를 밝혀야만 완결됨을 알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 3장의 내용을 기술한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적 입장에 반기를 드는 기독교 안팎의 반대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스토트는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반대 논변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각각의 반박 사항에 대해 다시금 응수를 시도한다. 이것이 4장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5장에서는 에이즈의 피해를 서술하고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조치가 어떠해야 할지 소개한다. 마지막 6장은 기독교의 기본적 덕인 믿음 · 소망 · 사랑을 주지(主旨)로 삼아 동성애자들에게 필요한 믿음, 치유에 대한 소망, 교회가 보여야 할 사랑을 서술한다.

짧은 내용이지만 존 스토트의 논지를 제대로 파악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 이슈에 대해 가져야 할 건전한 안목과 태도가 꽤 큰 정도로 함양되리라고 생각한다. 단지 그의 표현과 용어 사용이 축약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책자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선보일 책자는 스탠리 그렌츠(Stanley J. Grenz, 1950-2005)의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동성애에 대한 복음주의의 응답」(김대중 옮김; 새물결플러스, 2016년 역간) [Welcoming but Not Affirming: An Evangelical Response to Homosexualit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년 간)]이다. 그

렌츠는 침례교 전통의 신학자로서, 복음주의자로서는 흔치 않게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腦動脈瘤, brain aneurysm)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가 비교적 젊은 나이인 55세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그의 때 이른 타계를 안타까와 했다.

그렌츠는 책의 제목을 통해 자신의 취지를 명료히 밝히고 있다. 한 마디로 해서, 동성애자는 환영하지만 동성애나 동성혼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말 제목은 “환영과 거절 사이”라고 함으로써 다소 불명확한 표현을 채택했다]. 그의 관심사는 근본적으로 “동성애 관계가 인간의 삶과 행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역행하는가?”라는 윤리적 질문에 맞추어져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실제적 방침이라는 측면에서 풀어 보고자 한다.

1장에서 그렌츠는 동성애의 본질과 원인을 규명하려는 현대의 과학적 시도를 요약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동성애 현상을 질병 모델에 의거해 설명하려는 심리학자들의 노력이다. 이들은 동성애의 근원을 역기능적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찾든지 [주도적 견해], 이와 달리 동성애가 학습된 행위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소수적 견해]. 1950년대부터 동성애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생물학적 요인의 탐색 쪽으로 쏠리게 되었다. 이러한 탐색은 유전자 구조, 출생 전후의 호르몬 수치, 뇌 구조 분석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생물학적 실험의 결과 어떤 유전 요인이나 생리학적 요인이 동성애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서 둘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과학자 집단은 동성애가 유전과 환경 모두의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합의를 이루어 가고 있다. 이것은 성적 지향의 성격 이해와 동성애의 변화 가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렌츠가 2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성경에 나타나는 동성애 텍스트 네 곳 [창세기 19장 (및 사사기 19장), 레위기 성결법, 로마서 1장, 바울 서신의 도덕적 범죄 목록]에 대한 주해 문제이다. 그는 이 구절들에 대한 전통적 해석 - 성경이 동성애 행위를 금한다는 것 - 을 그대로 좇는다. 이 점에서는 앞서 소개한 스토트의 견해와 일치한다. 단지 그렌츠는 수정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학적 책략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또 그런 주해의 가당치 않음을 빈틈없이 반박하고자 한 까닭에, 논변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늘어졌다.

그러면 교회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동성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견지해 왔는가? 이것이 3장을 꿰뚫는 그렌츠의 관심사이다. 교부 시대에는 특별히 남성의 동성애 행위가 비난의 대상이었다. 중세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성애 행위를 정욕의 여섯 가지 유형 - 나머지 다섯 가지는 간음, 간통, 근친상간, 성적 유혹, 강간인데 - 가운데 포함시켰는데, 그 중 동성애가 가장 무거운 죄로 여겨졌다. 종교 개혁 이후에도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특별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다. 이처럼 교회는 2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도록 한결같이 동성애 행위를 도덕적으로 부당하다고 여겼다.

4장에서 그렌츠는 기독교가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형성에 있어서 성경 텍스트가 어떻게 규범으로서 기능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일단 성경의 규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수정주의자들은 동성애 연관 구절들이 성경 전체를 보는 원리인 바 언약, 사랑, 정의, 해방 등의 주제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렌츠는 우리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 (telos)이라는 맥락을 놓치면 이러한 주제들조차 우리를 오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 “목적”은 무엇인가? 그렌츠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5장에서 기독교 성윤리 - 섹슈얼리티, 결혼, 성행위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 - 를

개진한다. 이 가운데 성행위[성교]는 부부의 배타적인 연합을 아름답게 상징하고, 남편과 아내는 이 행위를 통해 상호 헌신을 재확인하게 되며, 부부 관계의 상호성을 기념하므로 한 배우자가 자기 파트너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자신의 욕구를 재확인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연합으로 생겨날 새 생명을 향한 부부의 열린 마음을 표현한다. 이처럼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남녀에 대한 결합이므로, 동성끼리의 성교는 결핍 행위이고 잘못된 상황에서의 성교로 판정이 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성애 지향”과 “동성애 행위”를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는 동성애 감정, 애정, 충동, 욕망, 갈망 등 이겨내야 할 유혹이고, 이러한 욕구에 휘둘려 행동할 때 후자 곧 “동성애 행위”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라고 바뀔 수 없을 경우 독신을 통해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에 근접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6장에서 그렌츠는 동성애자의 교회 참여에 대한 실제적 지침을 제공한다. 첫째, 동성애자의 교회 회원권에 대해서는 두 말할 나위 없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또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교회 내 사역을 허용해 주는 방안까지 제안한다. 둘째와 셋째, 게이/레즈비언의 연합 및 그들의 성직 임명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넷째, 동성애자의 인권과 관련한 법안의 지지에 있어서는 사례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동성애자들에게 교회의 회원권을 부여하고 사역의 기회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떤 복음주의자들에게는 과도한 “환영 조치”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렌츠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복음주의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기독교 성윤리의 제반 원칙들과 교회론적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건설하고 바람직한 신학적 작업으로 평가 받아 마땅할 것이다.

두 권의 한국인 저술

앞에 소개한 두 종의 해설서는 주로 영미 상황을 배경으로 한 서양인 저술가의 책이었다. 지금 거론할 두 권의 책자는 한국인(들)에 의한 저술이다. 이 두 권이 한국인 저술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책의 구성과 성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 첫째 권은 여러 전공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호적(好適)의 시점(vantage point)으로 삼아 동성애 이슈의 여러 측면을 기술한 논문 형식의 글 모음이다. 둘째 권은 과거에 동성애자였다가 탈(脫)동성애를 시도한 한 인물의 간증 수기이다.

첫째 권은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 편,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예영커뮤니케이션, 2011년)이다. 책자에는 “동성애를 긍정하지 않지만,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교회”라는 긴 부제가 붙어 있어, 책의 성격과 내용을 한 마디로 정리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총 13 편의 글을 수록한 이 모음집은 전체가 3부 - 제1부 “오늘의 문화 속에 나타난 동성애 문제”(3편), 제2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반성”(5편), 제3부 “동성애 문제와 교회의 법제적이며 목회적인 실천”(5편) - 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이 책자에 실린 글들의 목록이다.

- 제1부 오늘의 문화 속에 나타난 동성애 문제
 - 제1장 송해룡, 매스미디어 속의 동성애
 - 제2장 강진구, 동성애와 춤추는 영화
 - 제3장 김호경, 동성애, 그들의 고원(高原)
- 제2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반성
 - 제4장 배정훈, 구약성서에서 바라본 동성애
 - 제5장 소기천, 동성애와 신약성서: 바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 제6장 정원범,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반성
 - 제7장 박성관, 동성애에 친밀성 구조 내 배려 및

치유 윤리적 성찰

- 제8장 김진, 동성애와 배려의 윤리학
- 제3부 동성애 문제와 교회의 법제적이며 목회적인 실천
 - 제9장 박종운, 성전환자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 제10장 장현일, 동성애 차별금지법안문제점과 입법반대운동
 - 제11장 곽재욱, 동성애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목회적 대응을 위한 내러티브적 설명과 제안
 - 제12장 이상억, 동성애자를 위한 돌봄의 목회미학
 - 제13장 노영상, 최근 논쟁이 된 차별금지법안 내의 ‘성적 지향’ 삽입 문제에 대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입장에 대한 고찰

리뷰어 개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동성애와 관련한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글은 제2장과 제13장이었다. 전자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동성애 주제를 분석하고 소개한 글이었는데,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추세와 설득 논리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후자는 차별 금지 법안 내의 “성적 지향”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파장을 야기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지혜롭고 균형 잡힌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권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자신의 탈동성애 과정과 그 이후의 삶을 생생히 기술한 간증 형식의 경건 서적이다. 공식적으로 소개하자면, 이요나, 「리애타마 동성애 탈출」(키네마인, 2015년)이다. 이 책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동성애 문제를 몸소 체험하고 고민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역경을 견뎌 낸 한 인물의 강렬한 고백록이라는 데 있다. 이요나라는 본인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에피소드

와 일화들을 엮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리뷰어 역시 이 책자를 읽으면서 동성애자의 인생과 고뇌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동성혼과 동성혼 가정 비판서

끝으로 소개할 자료는 동성애보다는 동성혼 및 동성혼 가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 그리하여 전통적 이성혼과 이성혼 가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 책자이다. Glenn T. Stanton and Bill Maier, Marriage on Trial: The Case against Same-Sex Marriage and Parenting (Downers Grove,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04)이 공식 명칭인데, 한글로 바꾸면 「시험대에 오른 결혼: 동성혼 및 동성 부모 육아에 대한 반대」가 될 것이다. 두 저자 모두 가정 사역 단체인 Focus on the Family에 소속되어, 인문학자인 Stanton은 사회 문화부 연구소장으로, 아동 및 가족 심리학자인 Maier는 부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이 책이 동성혼이 법제화되기 11년 전에 출간된 것을 보면, 많은 지도자들은 머지않아 이런 사태가 올 줄 예상하고 미리부터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자는 전체가 3부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1, 2부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3부는 동성애에 대한 응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동성혼 주창자에 대해 답변함

- 1장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을 허락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 2장 이것은 일차적으로 정의의 이슈가 아닌가?
- 3장 다른 문화들에도 동성혼이 있지 않은가?
- 4장 동성혼은 어떻게 하여 다른 가족을 위협하는가?
- 5장 동성혼이 좀더 개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 6장 자녀들은 그저 사랑을 해 주는 부모 역할자만

있으면 필요가 충족되는 것 아닌가?

7장 전문 의료 그룹에서는 동성 부모 육아도 아이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2부 결혼이 성인, 자녀 및 사회에 어떻게 중요한지 이해함

8장 결혼은 부부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9장 결혼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10장 왜 자녀들은 어머니 및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가?

11장 이성혼자들은 어떻게 하여 동성혼 가족에 대해 길을 열어 준 셈이 되었나?

리뷰어가 이 책자를 읽으며 도움 받은 점은 세 가지이다. 두 가지는 책의 내용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리서치와 연관된 사항이다. 첫째, 전통적 결혼과 가정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둘째,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도 얼마나 필수적인지 깨달았다. 셋째, 이 책자에는 많은 자료가 소개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연구를 위한 디딤돌 노릇을 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가능하면 이 책자가 한글로 번역이 되기를 바란다.

동성애 이슈는 이미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로 성큼 다가왔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려면 어차피 표준서 1~2권은 읽지 않을 수 없다.



글 | 송인규

한국기독교학생회(IVF)의 총무로 역임하였으며,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으로 있다